



희년을 준비하며: 『기도, 하느님과 대화하는 기술』¹⁾

8월

■ 영혼의 '오아시스'³⁾

매 시대마다 수도승이나 수녀들처럼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한 이들은 자기네 공동체를 특별히 아름다운 장소에 마련했습니다. 이 장소들은 관상적 삶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곧 창조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장소의 아름다운과, 도시와 큰 교통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야 보장되는 고요함이란 요소입니다. 고요함으로 점철된 환경은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고 명상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고요함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말하자면 고요함이 자신을 '채우도록' 내버려 두는 것만으로도 기도를 위한 내적 준비가 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인간은 그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은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오아시스입니다. 그리고 수도원에는 안뜰을 둘러싼 회랑, 곧 십자로가 있는데, 이는 상징적 장소입니다. 그것은 닫힌 공간이지만, 하늘을 향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는 8월 11일 내일 아시시의 클라라 성녀를 기념합니다. 그래서 저는 프란치스코 회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소중한 영혼의 오아시스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아시시 밑에 위치하고, '천사들의 성모 마리아 Santa Maria degli Angeli' 성당을 향해 경사진 올리브 숲 속의 작은 수도원 '성 다미아노 San Damiano'입니다. 프란치스코가 회심을 하고 다시 세운 이 작은 성당에는 클라라와 그녀의 첫 추종자들이 등지를 틀었습니다. 기도와 노동으로 살았던 그들은 '가난한 자매들'이라 불리었습니다.

수도 공동체가 사는 장소의 고요함과 아름다움(단순하면서도 엄격한 아름다움)은 신적 조화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동체가 지향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럽에 있는 몇몇 수도원은 매우 오래되었지만, 다른 것들은 최근의 것이고, 또 다른 것들은 새로운 공동체들이 다시 세웠습니다. 영적 견지에서 볼 때, 이 영혼의 장소들은 세상을 짊어지고 가는 근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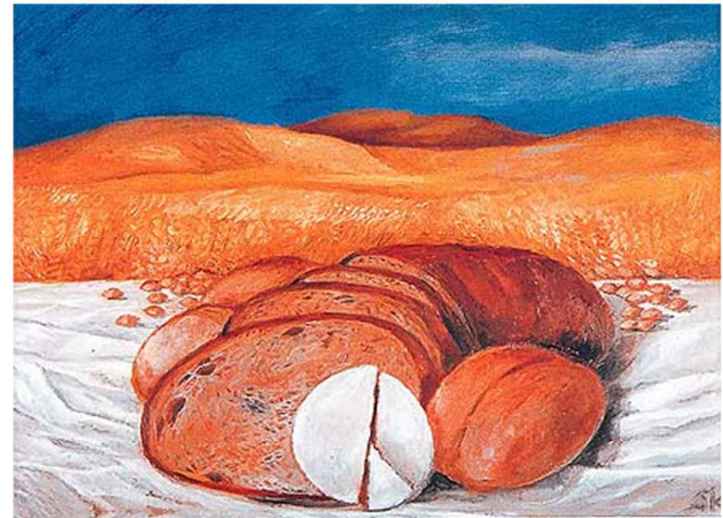
우리는 클라라 성녀를 기념했습니다. 한편 8월 9일 어제 기념일이었던 유럽의 공동 주보성인 십자가의 복녀 테레사 Teresia Benedicta vom Kreuz, 다시 말해 가르멜 회원 에디트 슈타인 Edith Stein처럼 '천상적인 것'에 시선을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키는 다른 성인들 역시 기념합니다. 그리고 8월 10일 오늘 부제이자 순교자인 성 라우렌시오 Laurentius를 잊을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그를 주보성인들 중 하나로 공경하는 로마인들을 위해서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묵과 기도를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도록 동정녀 마리아께 시선을 돌시다.

3) 가스텔 간돌포, 2011년 8월 10일.



복음나누기

연중 제20주일(8월 18일)
내 삶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요한 6,51-58)



생명의 빵

화가이며 신부인 지거 콰더는 표현주의 화법으로 많은 성화들을 그렸다. 그는 이 작품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푸른 하늘과 노란 밀밭은 하느님의 진리와 영광을 나타낸다. 제대포처럼 보이는 흰색의 땅 위에는 육신을 살찌우는 커다란 빵이 있고, 그 빵 앞에는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는 성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쪼개어진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작가 지거 콰더 | 유화, 작가소장, 독일



복음나누기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72번 “그리스도의 영혼”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 주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요한 복음 6장 5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52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5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54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58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요한 6,52)

주님과 교회의 이야기를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는지, 내 기준으로 주님과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요한 6,58)

성체를 모시면서 영원한 생명이 나중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복음나누기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체를 모시는 것은 개인적인 희망을 이루기 위해, 소원성취를 위해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체를 모시기 위해 먼저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것은 내 뜻을 바라기 이전에 주님처럼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위함입니다. 성체를 모시기 전에 주님의 기도를 비롯하여 교회의 기도와 평화의 인사, 그리고 성체 모시기 직전에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옵니다.”라는 기도를 바치는 것도 다른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기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또한 사제는 성체를 모시기 직전까지 다른 개인적인 지향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은 저를 지켜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피는 저를 지켜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바칩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기도이지요. 영성체 후에 사제는 “주님, 저희가 모신 성체를 깨끗한 마음으로 받들게 하시고 현세의 이 선물이 영원한 생명의 약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바칩니다. 마지막까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도를 바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 곧 성체는 영원한 생명의 빵이기 때문입니다. 성체를 모시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